



[라이프]  
한국아쿠르트  
펫쿠르트 첫 선  
니



Life

[트렌드]  
어린이용 화장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L4



# 서울시, 중소기업 경기 진단... 현장 체감경기 파악한다

### 서울 중소기업 1500여곳 경기조사 BSI 산출, 규모·업종별 상황 해석 경제 간담회 열고 현장의견 수렴

서울시가 시내 중소기업 경기조사에 나선다. 17일 시에 따르면 1억9800만원을 투입해 '2020년 서울시 중소기업 경기조사 용역'을 실시한다. 기업경기동향을 살펴 서울 지역 중소기업경기를 진단하고 현장 체감경기 상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다.

대상은 서울 지역 중소기업 1500여개다. 조사 항목은 ▲전반적 경기실적 현황과 전망 및 판단 근거 ▲업종별 매출, 영업이익, 수출실적, 자금사정, 상시종업원 수준, 고용여력 ▲제조업 생산, 설비가동률, 설비투자규모 ▲도소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son@

매업 제품재고 수준 ▲업체 경영상 애로사항 ▲자금조달(차입) 계획 ▲조달시점 ▲차입조건 ▲고용형태별 신규인력 채용(6개월 내) 계획 등이다. 아울러 금리수준 체감정도, 중소기업

구인난, 조세부담·경쟁정도·폐업부담, 정책수행 호감도 등 경영·현안 이슈 조사도 병행한다.

용역업체는매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경

기실사지수(BSI)를 산출한다. 이후 기업규모, 업종, 지역별로 분석된 BSI 지수의 주요 특징 및 변화 원인, 해당 산업·권역별 경기상황, 대내외 경제여건에 대한 상호 연관성을 종합적으로 해석해 보고서에 반영해야 한다.

시는 용역 수행 업체가 자체 개발한 BSI는 서울 지역만의 특성을 추출할 수 있어야 하며 다른 기관에서 산출한 기업경기실사지수와 비교·분석을 통해 신뢰도를 제고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용역 기간은 계약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다. 용역 업체는 7월부터 조사에 들어가 매월 기업경기실적 및 전망을 담은 분석 결과 보고서와 인포그래픽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과업에는 최근 경제 현안 이슈와 관련한 기업 간담회를

최소 1회 이상 열고 현장 의견을 수렴, 시에 전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용역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24~26일 서울시 경제정책과 기업협력팀에 제안서 등 구비서류를 내면 된다. 시는 기술인력 보유상태와 전문성, 유사사업 수행 경험, 사업계획 타당성, 수행방법과 제안내용 적정성, 입찰가격을 평가해 업체를 선정할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 입찰공고, 나라장터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서울시청 경제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이번 연구 용역을 통해 서울시 중소기업 특성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고 육성 과제를 도출할 것"이라며 "또 내년 서울시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 스타벅스, 문화유산보호기금 5천만원 기부

정재숙(왼쪽 두번째부터) 문화재청장, 송호섭 스타벅스커피 코리아 대표이사, 김종규 문화유산국민신탁 이사장 등 참석자들이 17일 오후 서울 중구 스타벅스 환구단점에서 열린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 기념 스타벅스 '환구단점' 개점 기념식 및 문화유산보호 후원 행사'에 참석해 기념촬영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문화유산보호기금 5천만원 기부를 후원하는 활동을 펼친다. /손진영 기자 son@

## 소상공인 바람 실은 '희망버스' 달린다

###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코로나19 극복 응원 나서

서울시와 버스운송사업조합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지친 시민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희망버스 2차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버스운송조합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를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해 전통시장 방문을 유도하는 광고를 실을 수 있도록 광고면을 제공했다. 시는 서울 전통시장을 경유하는 11개 노선을 선정해 총 50대 차량 내·외부에 '희망버스' 래핑광고를 부착했다.

약 한 달간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은 어려움 속에서도 열심히 생업에 종사하는 전통시장 소상공인이 주인공이다. 각 상인회의 추천을 받은 상인대표 14명의 목소리가 '희망버스'에 실렸다. 이번 캠페인에는 서울 경동·뚝도·망원·영



희망버스 모습.

/서울시

천·용문시장 상인회가 참여했다.

시는 서울 전역을 누비는 주요 노선을 선정해 소상공인을 위한 응원메시지를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전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시와 버스운송사업조합은 지난 5월 생활 속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온라인 개학을 맞이한 초등학생을 주제로

한 1차 캠페인을 실시했다.

지우선 서울시 버스정책과장은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이들 중 하나가 소상공인"이라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이들과 함께 협력해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바람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 서울시, 방문요양기관에 '좋은돌봄' 인증

### 우수기관에 보조금 최대 1800만원

서울시는 노인 방문요양 우수 기관을 인증하는 '방문요양 좋은돌봄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시내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209개 기관을 대상으로 인증 기관 선정 신청을 26일까지 서

울시 홈페이지에서 받는다.

'좋은 서비스', '좋은 일자리', '좋은 기관' 등 3대 영역의 24개 세부지표로 평가한다. 기준을 충족하는 정도를 따져 연간 보조금 최대 1800만원을 지급한다. 인증받은 기관은 보조금과 별도로 체온계 구입비 1회 최대 5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김현정 기자

## 공유오피스·육아병행... 세계는 지금 '스마트워크' 중

### 서울디지털재단, 분석보고서 발간 유럽·미국 원격근무 정책동향 담아

서울디지털재단은 유럽, 일본, 미국의 원격근무 정책 동향과 사례를 소개하는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스마트워크 정책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과 미국에서는 저출산과 환경오염 등 사회·경제변화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격근무를 시행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보육시설을 갖춘 '육아연계형 공유오피스'를 통해 육아와 업무병행을 지원하는 사례가 있다.

영국 런던의 '서드도어'(Third Doo



er)는 영국 교육 감사기관의 '우수등급' 인증을 받은 공식보육시설과 함께 공유오피스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이용하는 학부모는 자녀와 같은 공간에서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다고 보고서는 소개했다.

미국 테네시주는 2011년부터 2016년 까지 부동산 시설과 사무실 공간비용을

줄이기 위해 원격근무 시범사업을 추진했으며, 절감한 비용을 직원급여와 기술혁신에 재투자해 업무생산성과 직원 만족도가 크게 상승했다.

재단은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와 정보통신기술 고도화로 원격근무 방식과 업무환경도 변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재단은 코로나19로 널리 퍼지게 된 재택근무 경험이 원격근무의 뉴노멀(New Normal) 논의를 촉발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글로벌 정보기술 기업들과 네이버, SK이노베이션과 같은 국내의 사례를 들었다. 보고서 전문은 서울디지털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현정 기자

## 서울시, 공공사업 계약 과정 문자알림 서비스

### 공공계약사업 참여자 편의 개선

서울시는 7월부터 공사·행사 등 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공계약사업에 참여하는 기업과 업체에 계약 전 과정마다 필수 정보를 안내해주는 '문자알림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계약체결부터 대금지급, 실적증명서 발급까지 각 진행 단계별 소요시간과 필요한 서류 등 관련 정보를 실시간 문자로 받아볼 수 있게 된다. /김현정 기자

시 관계자는 "복잡하고 어려운 계약 절차 전 과정을 빠짐없이 안내하겠다"며 "공공사업 참여자의 편의를 개선하고 관련 업무를 보다 신속·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계약단계별로 세분화된 안내사항을 표준화된 문자 메시지 형태로 발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시스템은 다음달부터 서울시 본청과 사업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계약사업에 적용된다. /김현정 기자